

방재시험소를 둘러보고

협회 부설 방재시험소는 지난 9월 12일 국내 손해보험회사 화재특종업무부장과 보험공사등 손해보험업계 관련인사들을 초청, 방재시험소의 각종 시험시설들을 관람토록 했다.

다음은 시험시설을 관람한 이들의 소감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주>

손보업계 위험 관리업무정착에 기여토록



전 영 회

(범한화재·화재특종부장)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손보업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은 매우 크다고 본다.

화협이 현재까지 특수건물의 안전점검과 보험인수를 수행하면서 보험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한 국가 방재 및 보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방재시험소의 탄생 또한 화협의 또 하나의 업적이 아닐 수 없으며 시험소의 제 설비로부터 우리 손으로 시험성적을 얻어 낸다는 점은 곧 손해보험업계의 자부심이 되었다고 느껴진다.

이와 같은 자부심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차원의 폭넓은 지원, 업계의 지원, 연구요원의 피나는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보험의 역사가 깊은 선진 외국에도 보험업자 연구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또한 시험소 설립 추진시 화협

은 각국의 시험소를 방문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중 장점을 수렴하여 추진·시행한 것도 잘 알려져 있다.

다만 각국의 사회적인 구조와 여건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관련단체의 이해 관계에서 오는 정책적인 지원이나 배려가 가장 아쉬운 문제가 아닌가 싶다.

현재의 손해보험업계는 국내·외 여건의 악화로 각 사가 경영효율화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절감에 전력을 기울이는 등 점차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보험목적물의 사고율 감소 및 보유증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관리 측면도 실질적인 연구와 인력의 부족으로 그 실효를 거두기는 다소 시간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볼 때 방재시험소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고 보겠으며 진정한 보험업자의 시험소가 되기 위해서는 손보업계에 위험관리 업무가 정착되도록 다음과 같은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첫째 위험관리를 산업계 전반에 확산시키고, 둘째 국내 산업계에 적절한 위험관리기법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고, 셋째 손보사의 사고율 관리를 위한 시험연구 결과의 제공, 넷째 제반 자료의 활용 방법 소개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방재 시험소가 이러한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방재전문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